



셋째, “구조”와 “방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이 가진 특이점은 다른 기독교세계관 책들과 달리 자신의 주장점을 근거로 여러 가지 사안/주제/내용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한 대안 제시적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에 보면 성, 성령의 은사, 댄스 등 다섯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세계관적 분석과 대안 마련에 대한 힌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분석과 적용의 이론적 틀이 “구조”와 “방향”이라는 기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조”와 “방향”이라는 이론적 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만일 이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이 책자는 크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만일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이 틀을 채택하여 여러 가지 사안/주제/내용을 분석하고 기독교세계관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새시대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M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NP)', '이는 만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넷째, 기독교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원하던 원치 않던 이 두 가지는 모두 서양에서 온 것이고, 포스트모던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다. 즉 과연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서양과의 차이점이나 서양으로부터 배울 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독교세계관의 두 가지 저술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세계관』을 자료로 하여 기독교세계관과 포스트모던적 기독교세계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고흐이 『세계관은 이야기다』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경 신학적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세계관의 표현도 좋은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 실정에서의 “기독교세계관” 확립이다. 서양의 책이나 자료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실정에 적실하고 이론적으로도 견실한 그런 연구에 혼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30회 기독교 학문학회 기조강연 2 기독교 학문의 가능성과 필요성

신국원 (총신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70년대 운동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회를 책임지는 지성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83년 스튜디오 시작된 모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학문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정신에서부터 기독교대학, 대학 내 신우회 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다. 기독교 학문의 위상과 입지는 나아졌을까?

**여전히 기독교 학문은 “터무니없는 생각(outrageous idea)”인가?**

마스텐의 말처럼 기독교 학문은 여전히 터무니없는 생각일까? 기독교 학문은 학문의 중립성 신화가 깨어진 후에도 과연 가능한가? 과연 기독교적인 예술, 기업, 정치, 문화, 학문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사고를 바꿔서 기독교적으로 고스톱이 가능할까? 이를 두고 토론한 적이 있다. 토론 끝에 나온 대답은 결적이었다. 판돈에 욕심내지 않는다, 나중에 바가지질 씌우지 않는다 등부터 압권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에는 통성기도로 마무리한다였다. 중요한 것은 두 기도와 기도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닐까.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독교 학문이란  
세계관 삶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기독교 학문이란 세계와 삶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앙과 학문을 잘 버무려 통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곧 하나님의 주권을 편만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독교 학문은 그 기초와 목적이 세상과 다를 뿐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학자의 전인적 태도도 강조된다. 기독교 학문의 기초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적 세계관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다. 이 둘은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거장인 제임스 올타이스에 의하면, 세계관에는 “View of the world”의 차원(이해)이 있

고 “View for the world”의 차원이 있다고 한다. 즉, 세계관은 세계를 이해하는 안목이자, 거기서부터 세계를 만들어가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면 기독교에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관점이다. 세계관은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세상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있는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삶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인생(삶), 세상에 대한 조망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날의 기독교세계관은 이 세대가 조망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그 역할일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의 기본 관점인 ‘창조-타락-구속’의 원리를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학자라

면 학자의 소명인 학문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칼빈은 성경을 자연인의 안목을 고쳐주는 안경이라 했으며, 레슬리 뉴비킨은 바라보아야 할(look at) 책이 아니라 통해서 봐야 할(look through) 책이라고 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이 안목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학자라면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하고, 성경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의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of),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for)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에 기초해서 신실하게 학문(faithful scholarship)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학문의 이론적인 기초는 ‘변혁적’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다. 학문 위에 신앙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다. 학문의 역사 속에서 바뀌야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철학적으로는 “내적 개혁”이라 한다. 학문 밖에서 별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문 속에서 바뀌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를 중시하는 학문의 특성상 무조건 달라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칫 학문을 편파적으로 곡해할 수도 있는데, 학자의 태도를 포함한 신앙의 신실함은 물론 학문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신실함도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문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구의 토대와 방법이 기독교적인가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기독교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그분의 통치와 영향력, 주권이 고백되고 실천되는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는 기독교 학문은 꼭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는 꼭 신학적인 것이 아니어도 기독교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신앙과 학문의 통합

기독교 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있었다. 헬라 철학과 문화를 배격했던 터툴리안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나고 했고, 반대로 클레멘트는 철학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디딤돌이라며 무비판적 수용 태도를 취했다.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교양론』에서 이방 학문에서 진리의 보화를 “탈취”(spoliation)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방 학문을 거부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활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현 상황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개념은 기독교 학문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학문연구의 지식을 삶과 세상을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포괄적인 방식으로 보는 세계관과 연관시켜 조망하는 것이다. 즉, 학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성경적 비전에 맞추어 하나의 통합된 그림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통합은 학문이 가진 추상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문이 삶과 연관되고 의미를 갖으려면, 신앙과 학문의 가정 사이에 공통성과 긴장을 밝혀내고 포괄하는 큰 패러다임 속에서 연관시켜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학회에 참여해야 한다. 학문이 지극히 다원화, 다양화를 지양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관점의 유관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참여해야 한다.

기독교 학문의 독특한 정체성이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학문은 항상 일반 학문과의 관계 속에 존재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은 어리석음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학문의 회복은 우선 그 학문이 기초하고 있는 전(前) 학문적 주제들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 비롯된다.

학문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기초적 전제와 세계관을 비판하고 재구성하여 그것을 변혁하는 일은 단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반박하는 피상적인 작업으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 작업은 우선적으로 해당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들을 필요로 하며, 그 위에 기독교적 통찰과 대안적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성경을 몇 구절 인용하여 반박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학자, 교사로서 신실한 자세로 학문의 신실함을 추구하며 부분적이라도 꾸준히 파고들 수 있다면 대단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학문은 원칙적으로 통합이라는 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 기독교 학문의 사명

아더 홉즈는, 통합은 하나의 이상(理想)이지 그것의 성취(achievement)가 아니라고 했다. 부르심(calling)이면 신실하게 임하면 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러나는 것이다. 게임에 참여할 때에는 그 게임의 룰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 안에서 차이와 가능하면 탁월성을 드러내야 한다. 여기에는 자세, 태도, 동기 그리고 윤리규정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남에 대한 존중이 밀반침 되어야 한다.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영안 교수는 수월성과 탁월성이 없는 기독교 학문은 어떤 면에서 맛을 잃은 소금 같다고 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학문

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탁월성이나 실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이를 위해 진지하게 학문을 뒤집어 봐야 한다.

학문적 탁월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신앙적 차원의 다원성 인정을 학문적 수월성의 차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와 평범한 연구 사이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기독교 신앙은 정당한 학문연구의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안경의 역할을 하기에 기독교적 “해방된 상상력”은 학문의 우상이나 독단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기독교 학문의 증진과 탁월성은 이미 시작되었고 존재한다. 마스덴처럼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며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학문적 풍토를 이겨내고 새롭게 유망한 방식으로서의 조망을 열어가면서 학문을 향한 가능성과 방향이 되는 것이 기독교학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함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NVP) 등이 있다.